

업이 필요하며,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복합 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농산어촌 복합 개발사업을 지역의 중견 건설업체가 직접 뛰어들어 수행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사회의 후생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국 전남 지역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

될 공공부문 대형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도를 높이고, 읍·면 단위의 농어촌 지역에 복합 개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향후 과제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업계의 애로를 파악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건설업체는 지역에서 필요한 개발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상생 협력 체계를 지속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전북 : 키워드는 역시 ‘새만금’

이 창 현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하나 되어 전북을 바꾼다”라는 도정 목표를 내걸고 민선4기에 이어 민선5기 전북 도정이 힘찬 출발을 했다. 김원주 도지사는 민선5기 출범식을 통해 “4년 전 가난한 집안의 가장이 된 심정으로 민선4기를 시작했다면 앞으로 4년은 도민의 소망인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 그리고 새만금 조기 개발을 이루겠다”고 강조하여 취임사 대목에서 민선5기 전북 도정의 기본 방향을 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새만금사업은 앞으로 10년 내에 10조원의 국비 등 총 21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프로젝트로 기대되고 있다.

김원주 도지사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주, 익산, 김제, 부안 등 내륙 및 서해안권을 동북아경제중심 지역으로 발전시켜 글로벌 새만금 메가시티를 건설하고 무주, 장수, 임실, 남원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관광휴양지역을 조성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웰빙 도시로 만들겠다는 민선 5기 전라북도 발전 비전도 제시하였다.

분야별 중점 사업 가운데 건설 분야와 관련된 공약 및 현안 사업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사업, 새만금 내부 개발 및 SOC사업, 문화권 특정 지역 및 연담권 관광사업 등을 핵심으로 꼽을 수 있다. 3개 분야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임대주택 1만호 건설

첫째, 민생과 서민을 위한 약속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 1만호 건설사업을 펼쳐 저소득층 시민에게 공급함으로써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LH공사와 전북개발공사에 장기 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현하며 그렇게 될 경우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해결은 물론 주택시장 활성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도 동시에 기대해볼 수 있다.

새만금 내외부 공간 사업

둘째, 거둬드는 이명박 대통령의 새만금 국책사업



새만금 사업에는 향후 10년 내에 총 21조원이 투입된다.

추진 의지 천명을 통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새만금사업은 민선5기 동안 새만금사업지구 내부 공간뿐만 아니라 주변 외부 공간에 동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SOC 건설사업은 점 형태보다는 선 형태의 특성을 갖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새만금 내부사업, 새만금 외부사업, 양 지역을 연계하는 공통적인 SOC 사업으로 별도 구분된다.

예컨대, 내부 공간 사업으로는 ① 확실한 새만금 내부 개발 추진을 위해 2008년 대통령에게 건의된 새만금개발청 설립, ② 새만금의 핵심 사업인 새만금 명품복합도시 조기 건설을 위해 민자 5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베네치아와 같은 물의 도시로 건설하고 국제업무지역 조성 및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 ③ 약 2조원의 총사업비를 투자해 2018년 조성 및 분양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내 저탄소 녹색 성장의 선도 지역인 새만금산업단지(18.7km²)의 조기 개발, ④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관광단지의 국제적 게이트웨이 조성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외부 공간 사업으로는 ① 국비 3조원을 투입하여 궁극적으로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고자 추진되는 다양한 습지 공간 창출과 '고향의 강' 사업을 통한 만

경강과 동진강의 프리미엄급 생태 하천 조성 사업, ② 현재 전국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한센인 정착촌 이면서 축산 농가가 수십 년 동안 밀집되어 온 한센인 거주지역(282만m²)의 주거환경 개선과 새만금 수질 오염원 해소를 위한 왕궁축산단지 정비 및 완전 이전 사업 등이 있다.

한편, 새만금 내·외부 공간을 대상으로 한 기반 조성 사업으로서 예비타당성 통과 후 2020년까지 1조원이 투자될 새만금 신항과 현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 및 국제공항 신설 추진은 새만금 지역이 국제 물류거점 지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SOC 사업이며,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토 동서횡단 고속국도인 새만금~무주~대구(포항) 고속도로 건설은 4조 5,000억원의 국비가 투자될 사업으로 영호남을 고속도로로 잇는 상징성과 함께 영남권 공산품의 대중국 수출 가교 역할을 담당할 사업이다.

아울러 새만금 지역 내부 철도사업(새만금~군산)과 연계성을 가지면서 1조 7,000억원의 국비가 소요될 예정인 새만금 지역과 영남 지역을 잇는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관광 자원 개발

셋째, 전라북도 내에 지정되어 있으면서 문화권 별로 약 5,0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지리산문화권과 해양농경역사문화권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전통 문화의 계승은 물론 특색 있는 정주 환경, 산업 및 관광자원 개발이 기대된다.

동시에 동부권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무주리조트, 무주태권도공원, 장수 승마산업, 진안 한방홍삼리조트, 남원 연수관광지, 임실 치즈체험마을, 순창 강천산 등을 하나의 연담 벨트로 연결하고 특색 있는 관광 자원으로 개발코자 한다. 이는 한국에서 가

장 깨끗한 공기와 자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적 장점을 기반으로 동부권이 세계적인 관광휴양 지역으로 자리매김되는 사업이다.

이 외에도 새만금 명품도시 내 링 로드(Ring road)를 중심으로 새만금 연담도시권 전체를 1시간 권에 연계해 통합력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 신교통 수단 도입을 추진하며, 전주 및 동부권 지역으로부터 공항까지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1시간 생활권 도로망 구축(3개 노선 약 1조 5,000억원)과 전주~군산공항간 30분대 도로망 구축사업을 병행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다.

제주 : 국제자유도시 '완성' 공언

김 영 현 | 제민일보 기자

민선5기 제주도정이 지난 7월 1일 공식 출범했다. 민선5기 제주도정을 이끌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제주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된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공언했다. 이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제주영어교육도시를 비롯해 굵직굵직한 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등재 추진,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예정 등으로 인해 환경 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 우근민 도정은 그동안 개발 위주 정책을 펴왔던 민선 4기 시절과는 다른 색깔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선5기 제주도정이 개발과 환경 보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잡

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10개 분야 58개 주요 공약 가운데 건설 관련 공약은 3~4개 정도에 불과하지만, 민선 5기에 이뤄지는 건설 분야 사업은 사업비만 수조원대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즐비하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시설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들이다. 이들 프로젝트들은 우 지사 취임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거나 가시화된 것들이지만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제주도정이 역점을 둘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